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Children's Motives and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in Angry and sad Situations

이지선*
Lee, Ji Sun
유안진**
Yoo, An Ji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audience type (mother or close friend) age, and gender on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in angry and in sad situations. Hypothetical vignette methodology was used with 314 children in grades 5 and 7. In angry situations, all boys and all 5th grade children regulated anger more with instrumental motives while 7th grade girls showed more prosocial motives. Children showed more prosocial and rule oriented motives with peers and relational motives with mothers. In angry situations, children used aggression regulation strategies more toward peers and activity regulation strategies more toward mothers. Children's age and sex explained sadness regulation motives better than audience type with peers, but children used more activity regulation strategies with mothers in sad situations. When sad, fifth graders used more verbal and facial expression strategies than 7th graders while boys used more activity regulation strategies than girls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론

정서는 사회적인 삶에서 필요를 신호하고 의도를 전달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능주의적 관점(functionalist perspective)에서는 정서를 개인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환경간의 관계를 설립, 유지, 변화, 혹은 종결지으려는 시도와 동일시하고 있으며(Barrett & Campos, 1987), 여기에서 사회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즉, 아동은 사회화를 통해 특정한 양식의 정서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화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정서 표출 규칙(display rule)을 학습한다. 이 때 부모, 또래와 같은 사회화 대행자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는 표현을 장려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직접·간접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학습시킨다(Denham, 1993). 따라서 효과적인 정서관리는 문화규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 내에서 자신의 목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회·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정서 조절(emotional regulation)이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혹은 정서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해야 한다는 원칙인 정서 표출 규칙을 따른다(Ekman & Friesen, 1975). Thompson(1994)은 정서조절을 하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과정으로도 보면서, 개인의 목표를 위해 정서적인 반응을 모니터, 평가, 수정하는 과정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서조절에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이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이주일, 1998) 이로 인해 정서조절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Denham, 1998).

Timmers, Fischer와 Manstead(1998)는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두 가지 형태의 정서조절 동기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정서표현이 자기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정화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화가 났을 경우 문을 세게 닫아버림으로써 분노가 해소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타인과 관련하여 정서표현이 낳는 결과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정서표현의 바람직성이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과 관련된 규범을 들 수 있으며, 정서 사회화의 결과로 남는 자신의 정서표현과 관련해서도 다른 기대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의 목표와 정서조절 동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Timmers et al., 1998).

Gnepp와 Hess(1986)는 아동의 정서조절동기를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 자존감을 보존하려는 자기-보호적인 차원의 동기와 관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동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사회화의 결과로 아동은 자기-보호적인 동기보다 친사회적 동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최근의 연구들(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8)에서는 정서조절 동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기-보호적인 차원의 동기를 관계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 구분하고, 이외에 친사회적 동기와 정서조절에 관한 문화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규칙-지향적 동기를 첨가하고 있다.

정서조절의 또 다른 부분은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것으로,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과 관련된다. 아동은 언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가도 아울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서조절 전략은 일단 아동이 정서를 경험한 직후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한 후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결정된다. 정서조절을 위한 전략들은 반드시 행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서적, 인지적, 혹은 행동적인 전략으로 구분되어(Denham, 1998), 아동이 슬픔 때 울음을 참는다든지, 슬픔을 유발한 상황에 대한 정당화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행동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 등을 말한다. 정서는 개인 내적인 느낌으로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를 통하여 표현된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Ekman & Friesen, 1975)에서는 정서조절 전략으로 얼굴 표정을 바꾸는 4가지 방식(최소화, 과장, 위장, 대체)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Zeman & Garber, 1996 ; Zeman & Shipman, 1996, 1998)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됨을 확인하고, 이를 표정을 바꾸는 표정 조절, 언어적 발언을 조절하는 언어 조절, 자신의 공격성 수준을 조절하는 공격성 조절,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조절 전략들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아동들은 문화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서 표출규칙을 사용하며 여기에서 정서조절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아동의 연령과 성별은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작용한다. 분노상황에서 또래지위,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상황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건 지각, 대처반응을 살펴본 연구(Whitesell & Harter, 1996)에서는 분노를 유발시킨 또래가 단짝 친구일 경우 우정을 지속시키려

는 의지로 또래와 직접 이야기를 하는 식의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보통의 친구일 경우 상대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적어 관계 보존보다는 자기-보호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화 정서 이해 및 화 정서 조절 방안에 관한 연구(이옥임, 1996)에서는 분노상황이 또래와 관련되었을 경우 아동은 공격적인 방안, 직접적인 문제해결 방안, 무대처 방안등의 순으로 분노 조절 전략들을 사용하는 반면, 성인과 관련된 상황일 경우 절반 이상의 아동은 성인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무대처 방안을 사용함을 밝혔다. 이는 상황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들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표현에 변화가 나타난다. 아동은 연령 증가에 따라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최정운, 1994), 실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위장하여 표현하는 능력은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이지은, 1997). 이밖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차이가 나타난다. 정서표현과 통제에 있어 성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서조절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여아에게서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남아보다 이런 정서들을 표현했을 경우 타인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Zeman & Garber, 1996). 즉, 여아는 고통의 표현이 지지를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식한 반면 남아는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타인들의 놀림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다. 이는 정서표출 규칙이 남녀에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제까지 정서표출 규칙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연령, 성별에 따른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이지은, 1997 ; 최정윤, 1993 ; Cole, 1986 ; Davis, 1995), 청중조건에 따라 정서표출 규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서 사회화에 있어 부모가 중요한 사회화 대행자임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지만(한유진, 1998 ;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 Garner, 1995 ; Garner, Robertson, & Smith, 1997 ; Gnepp & Hess, 1986),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화 대행자인 또래의 역할을 부모와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 밖에도 정서조절에 있어서 그 동기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극소수에(Timmers et al., 1998 ; Zeman & Garber, 1996 ; Zeman & Shipman, 1998) 불과하므로 정서조절의 동기와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을 분노와 슬픔이라는 두가지 부정적인 정서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또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를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중에서도 분노와 슬픔의 정서는 아동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이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Zeman & Shipman, 1997)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의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을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정서조절 동기의 하위 범주(관계적 동기, 도구적 동기, 친사회적 동기, 규칙-지향적 동기)는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 범주(언어조절 전략, 표정조절 전략, 울음조절 전략, 공격성 조절 전략, 활동조절 전략)는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11세)과 중학교 1학년(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11세와 13세 아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보이기 때문이다. 즉, 아동기 후기부터는 정서 조절에 대한 사회화 압력이 증가하므로 아동들이 사회규범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서표출

규칙을 사용하는 한편, 청소년기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관여가 감소하고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반면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친밀감이 증가하고, 정서적 지지가 증가하는 등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에 있어 아동기와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Zeman & Shipman, 1997, 1998 ; Whitesell & Harter, 1996)

2. 연구도구

1) 분노 및 슬픔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Zeman과 Garber(1996)가 7, 9,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정서 시나리오(분노, 슬픔, 고통) 중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분노와 슬픔의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우리 문화의 실정과 연구대상의 연령특성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정서 시나리오는 각 정서별로 생일파티, 선물 받기, 운동경기,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의 4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사건들에서 주인공 아동은 청중조건인 어머니¹⁾, 혹은 또래²⁾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서 시나리오는 청중조건이 어머니이나 또래이나에 따라 3개의 분노 상황, 4개의 슬픔 상황, 시나리오 총 14개가 사용되었다. 대상 아동은 무작위로 하나의 청중조건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받게 된다. 청중조건에 따른 11세 아동용 정서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³⁾

〈슬픔, 장난감, 어머니청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와

함께 아무리 찾아도 그 장난감을 찾을 수 없었다. 장난감이 정말 없어졌나보다. 나는 슬펐다. 하지만 엄마에게 내가 슬픈 것을 보이고 싶지 않다.

〈분노, 운동경기, 또래청중〉: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 오늘 체육대회에서 내가 우리 반 대표로 달리기를 했다. 나는 꼭 일등을 하고 싶었다. 열심히 뛰었지만 옆 반 아이가 일등을 했다. 저쪽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슬펐다. 하지만 친구에게 내가 슬픈 것을 보이고 싶지 않다.

분노 및 슬픔 시나리오는 연구자를 포함한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 3명이 협의하여 아동의 연령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2) 정서조절 동기 척도

정서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Zeman과 Shipman(1998)이 선행연구(Gnepp & Hess, 1996; Zeman & Garber, 1996)들을 참조하여 사용한 정서조절 동기 척도를 번안,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를 관계적 동기, 도구적 동기, 친사회적 동기, 규칙-지향적 동기의 4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관계적 동기란 부정적인 특정

- 1) 이 경우 청중은 정서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부정적인 정서의 타겟이 되는 상대와 정서를 표현하는 대상이 동일 인물일 경우에는, 정서의 타겟과 대상이 다른 인물일 경우(Timmers et al., 1998)와 청중의 지위가 다를 경우(Saarni, 1991)에 따라 정서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 2)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지은, 1997; Zeman & Shipman, 1998)을 토대로 아버지를 청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3) 여기에서의 또래란 동성의 단짝 친구를 말한다. 성별을 동성으로 제한시킨 것은 청중의 성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한 것이며, 단짝 친구로 설정한 것은 부모와 더불어 단짝 친구가 주요 사회화 대행자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 4) 몇 가지 기본 정서들이 결합하여 복합정서를 이루므로(Oatley & Jenkins, 1996), 본 시나리오에서는 주인공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가 분노와 슬픔임을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아동의 이해를 쉽게 하였다.
- 5) 정서 시나리오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11세용과 13세용으로 구별되며, 구체적인 시나리오 내용은 연령에 따라 약간씩 수정되었다.

정서를 표현했을 경우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반응(예: 놀림)을 회피하고자 자기-보호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도구적 동기란 앞의 관계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한다는 자기-보호적인 동기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결과(예: 칭소하기)가 직접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이 구별된다. 친사회적 동기란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상대방 청중의 정서적 복지를 보호한다는 것(예: 내가 슬픔을 표시하면 상대방이 마음 아파한다)을 바탕으로 하며, 규칙-지향적 동기란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문화 규범적인 규칙(예: 슬퍼도 표시하지 않는 법이다)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정서조절 동기 하위범주들은 각 정서당 분노 시나리오에 3문항씩, 슬픔 시나리오에 4문항씩 구성되어 분노상황에 총 12문항, 슬픔상황에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공이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 동기가 자신의 생각과 아주 다를 경우(1점)에서 아주 비슷할 경우(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각 하위 동기당 Cronbach's α 가 .79, .79, .83, .84였으며 정서조절 동기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3) 정서조절 전략 척도

분노 및 슬픔의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Zeman과 Garber(1996), Zeman과 Shipman(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조절 전략 척도를 수정, 번안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을 언어 조절 전략, 표정 조절 전략, 울음 조절 전략, 공격성 조절 전략, 활동 조절 전략 5가지의 하위전략

으로 구분한다. 언어 조절 전략이란 부정적인 정서를 감추기 위해 언어적 발언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표정 조절 전략이란 정서 표현을 조절하기 위해 얼굴 표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울음 조절 전략이란 울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며, 공격성 조절 전략이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반응인 공격성을 약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고, 활동 조절 전략이란 정서조절의 방법으로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예: 텔레비전 보기)을 말한다. 각각의 하위범주들은 분노 시나리오에 3문항, 슬픔 시나리오에 4문항씩으로 구성되어 분노 상황에 총 15문항, 슬픔 상황에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공이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 그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아주 다를 경우(1점)에서 아주 비슷할 경우(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각 하위 전략당 Cronbach's α 가 .78, .80, .83, .90, .82였으며 정서조절 전략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 표집에 있어서는 가정의 경제적인 배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안시의 중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곳을 임의선정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4반씩을 선정하여 총 8개 반의 남녀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999년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하여 초등학생 172부, 중학생 165부, 총 337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초등학생 159부, 중학생 155부, 총 314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Wi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라 분노 및 슬픔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범주별로 차이가 있

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했으며, 연구자를 포함한 아동학 박사과정 3명이 시나리오 및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분노, 슬픔 상황에서의 하위범주별 정서조절 동기의 차이

1) 분노상황에서의 하위범주별 정서조절 동기의 차이

분노 상황에서의 정서조절 동기의 하위범주별로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첫째, 청중조건에 따라 분노 조절 동기의 하위 범주 중, 관계적 동기($F=14.21, p<.001$), 친사회적 동기($F=8.73, p<.01$), 규칙-지향적 동기($F=4.5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

머니에 대해서는 관계적 동기가, 또래에 대해서는 친사회적 동기, 규칙-지향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중조건에 따라 아동이 갖는 분노 조절 동기가 다를 수 있다. 아동은 분노를 표현하면 어머니로부터 놀림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고, 또래에 대해서는 또래의 정서적 복지를 걱정하였으며, 또래 앞에서는 분노를 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낮은 또래 수용과 관련된다(강희연, 1998)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의 연령상 점차 또래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타

<표 1> 분노 상황에서의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동기의 차이

변수	하위범주	관계적 동기	도구적 동기	친사회적 동기	규칙-지향적 동기
		M (SD)	M (SD)	M (SD)	M (SD)
청 중	엄마(N=149)	5.24(2.14)	4.25(1.72)	6.47(2.52)	6.60(2.74)
	또래(N=162)	4.59(1.94)	3.98(1.55)	7.28(2.34)	7.24(2.59)
		$F=14.21^{***}$	$F=2.17$	$F=8.73^{**}$	$F=4.57^*$
연 령	11세(N=158)	5.12(2.36)	4.31(1.84)	6.54(2.56)	6.68(2.79)
	13세(N=153)	4.95(2.11)	3.90(1.36)	7.26(2.30)	7.19(2.54)
		$F=.46$	$F=5.06^*$	$F=6.62^{**}$	$F=2.81$
성 별	남자(N=146)	5.15(2.24)	4.33(1.64)	6.50(2.40)	7.18(2.68)
	여자(N=166)	4.93(2.23)	3.91(1.62)	7.24(2.47)	6.72(2.67)
		$F=.71$	$F=5.17^*$	$F=7.21^{**}$	$F=2.31$

* $p < .05$ ** $p < .01$ *** $p < .001$

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서양에서는 또래에 대한 관계적 동기가 높게 나타난 것(Zeman & Shipman, 1998)과는 달리, 우리 나라 아동들은 분노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이 낮다고 지각함으로써 우리 나라 부모들이 서양의 부모보다 자녀의 분노 표현에 대해 더 엄격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분노 조절의 도구적 동기(F=5.06, $p < .05$), 친사회적 동기(F=6.62, $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1세 아동은 상호작용 파트너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으며, 13세 아동은 파트너의 정서적 복지를 더 생각해서 분노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1세 아동은 자기-보호적인 차원에서, 반면 13세 아동은 타인-보호적인 차원에서 분노를 조절하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연령 증가에 따라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는 능력이 발달함(최정윤, 1994; Gnepp & Hess, 1986)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분노 조절의 도구적

동기(F=5.17, $p < .05$), 친사회적 동기(F=7.21, $p < .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노를 조절함에 있어서 남아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높았고, 여아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표출규칙 사용에 대한 여아의 친사회적 정당화가 높고(한유진, 1998), 분노와 슬픔 상황에서의 정서조절에서 여아의 친사회적 동기가 높다는(Zeman & Shipman, 1998)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정서 사회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2) 슬픔 상황에서의 하위범주별 정서조절 동기의 차이

<표2>는 슬픔 상황에서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동기의 하위범주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첫째, 슬픔의 정서조절 동기 하위범주들은 청중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청중조건에 따라 연령을 구분하였을 경우, 친사회적 동기(F=8.89, $p < .01$)와 규칙-지향적 동기(F=13.98, $p < .001$)에서 청중조건과 연령에

<표 2> 슬픔 상황에서의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동기의 차이

변수	하위범주	관계적 동기	도구적 동기	친사회적 동기	규칙-지향적 동기
		M (SD)	M (SD)	M (SD)	M (SD)
청 중	엄마(N=147)	6.79(2.94)	5.01(1.63)	10.01(2.87)	9.41(3.94)
	또래(N=160)	6.44(2.62)	5.19(1.94)	10.65(2.90)	9.92(3.25)
		F= 1.26	F= .82	F= 3.38	F= 1.50
연 령	11세(N=152)	6.90(3.07)	5.08(1.75)	9.81(3.09)	9.25(3.69)
	13세(N=153)	6.31(2.43)	5.12(1.85)	10.91(2.59)	10.11(3.46)
		F= 3.53	F= .04	F=11.23***	F= 4.35*
성 별	남자(N=143)	6.73(2.89)	5.46(1.98)	10.01(2.78)	9.75(3.35)
	여자(N=164)	6.50(2.68)	4.79(1.56)	10.63(2.98)	9.62(3.81)
		F= .53	F=10.92***	F= 3.09*	F= .11

* $p < .05$ *** $p < .001$

〈표 3〉 슬픔 상황에서의 청중조건과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동기와 규칙-지향적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범주	청중조건	연령		계
		11세	13세	
친사회적 동기	어머니	9.01(2.93)	11.12(2.39)	10.03(2.87)
	또래	10.56(3.07)	10.73(2.75)	10.65(2.90)
	계	9.81(3.09)	10.91(2.59)	10.35(2.90)
규칙-지향적 동기	어머니	8.23(3.69)	10.65(3.85)	9.41(3.94)
	또래	10.22(3.44)	9.63(3.04)	9.92(3.24)
	계	9.25(3.69)	10.11(3.46)	9.68(3.60)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표3〉을 보면, 11세 아동은 어머니에 대한 친사회적 동기와 규칙-지향적 동기가 매우 낮은 반면 13세 아동은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친사회적 동기와 규칙-지향적인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즉, 11세 아동은 슬픔을 표시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아플 것이므로 이를 표시하면 안되겠다는 동기가,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원래 슬픔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동기에서 슬픔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13세 아동은 11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아동이 어머니에게 슬픔을 표현해도 어머니가 이를 수용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아동이 중학생이 됨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응집력이 느슨해지고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인 자기노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신의 슬픔을 조절하려는 것의 결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슬픔 조절의 친사회적 동기($F=11.23, p<.001$), 규칙-지향적 동기($F=4.3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13세 아동은 11세 아동보다 슬픔 조절시 상대방의 정서적 복지를 더 많이 보호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타인의 정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

(최정윤, 1994 ; Gness & Hepp, 1986)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연령에 따른 규칙-지향적 동기의 차이는 앞의 청중조건과 관련지어 설명된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슬픔 조절의 도구적 동기($F=10.92, p<.001$), 친사회적 동기($F=3.0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는 여아보다 도구적인 동기로서, 또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인 동기로서 슬픔을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슬픔을 표현할 경우 여아는 남아보다 상대방이 이를 더 수용해줄 것을 기대하며(Zeman & Garber, 1996), 분노와 슬픔 조절에 관한 여아의 친사회적 동기가 높다(Zeman & Shipman, 199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남녀에 따라 정서사회화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아는 보다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타인의 정서상태에 주의를 보내는 반면 남아는 슬픔을 표시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사회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분노, 슬픔 상황에서 하위범주별 정서조절 전략의 차이

1) 분노상황에서의 하위범주별 정서조절 전략의 차이

분노 상황에서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라

〈표 4〉 분노 상황에서서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전략의 차이

변수	하위범주	언어 조절	표정 조절	울음 조절	공격성 조절	활동 조절
		M (SD)	M (SD)	M (SD)	M (SD)	M (SD)
청중	엄마(N=149)	7.76(2.35)	8.03(2.45)	7.90(2.93)	7.79(3.09)	8.57(2.38)
	또래(N=159)	7.62(2.33)	8.27(2.33)	8.57(2.73)	8.57(2.73)	7.52(2.44)
		F= .27	F= .76	F= 3.36	F= 5.48*	F=14.73***
연령	11세(N=156)	7.89(2.46)	8.44(2.60)	8.19(2.90)	8.07(3.07)	7.92(2.63)
	13세(N=153)	7.49(2.21)	7.87(2.12)	8.23(2.95)	8.32(2.78)	8.14(2.28)
		F= 2.26	F= 4.40*	F= .01	F= .55	F= .62
성별	남자(N=144)	7.60(2.50)	8.31(2.42)	8.45(2.91)	8.40(2.74)	8.27(2.43)
	여자(N=163)	7.76(2.19)	8.02(2.36)	8.01(3.09)	8.01(3.09)	7.82(2.48)
		F= .37	F= 1.06	F= 1.82	F= 1.32	F= 2.54

* p < .05 *** p < .001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범주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4>와 같다.

첫째, 청중조건에 따라 공격성 조절 전략(F=5.48, p<.05), 활동 조절 전략(F=14.7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노 조절 시 아동은 어머니보다 또래 앞에서 공격성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했으며, 또래보다 어머니 앞에서 분노 조절을 위해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들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은 낮은 또래 수용과 관련되고(강희연, 1994; Eisenberg et al., 1992), 아동은 분노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가 아닌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는 방식의 대처전략을 사용한다(Beaver, 1997)는 사실로 설명해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표정조절 전략(F=4.4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11세 아동은 13세 아동보다 분노 상황에서 표정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동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를 위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굴표정보다는 언어적 표현을 더 빨리, 더 의식적으로 조절한다는 결과 최정운,

1994, Gnepp & Hess, 1986)와 불일치하며, 어린 아동은 나이가 아동보다 분노 상황에서 표정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Zeman & Garber,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분노조절 전략 하위범주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양의 연구들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울음 조절 전략을, 남아는 여아보다 공격성 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8)고 보고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분노조절 전략의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성별의 설명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슬픔상황에서의 하위범주별 정서조절 전략의 차이

슬픔 상황에서 정서조절 전략의 하위범주별로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와 같다.

첫째, 슬픔 조절 전략의 하위범주 중 활동 조절 전략(F=13.58, p<.001)만 청중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은 또래보다 어머니

〈표 5〉 슬픔 상황에서의 청중조건, 연령,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전략의 차이

변수	하위범주	언어 조절	표정 조절	울음 조절	공격성 조절	활동 조절
		M (SD)	M (SD)	M (SD)	M (SD)	M (SD)
청 중	엄마(N=147)	10.62(3.31)	11.12(3.09)	11.63(3.08)	10.35(3.46)	11.19(3.24)
	또래(N=158)	10.76(3.11)	11.56(2.84)	11.85(3.26)	10.80(3.37)	9.81(3.33)
		F= .14	F= 1.63	F= .37	F= 1.28	F=13.58***
연 령	11세(N=154)	11.07(3.33)	11.79(3.06)	11.84(3.07)	10.51(3.56)	10.33(3.57)
	13세(N=152)	10.30(3.03)	10.89(2.80)	11.65(3.28)	10.66(3.27)	10.61(3.13)
		F= 4.51*	F= 7.00**	F= .28	F= .15	F= .56
성 별	남자(N=143)	10.75(3.40)	11.43(2.98)	12.08(3.20)	10.88(3.31)	10.90(3.03)
	여자(N=163)	10.64(3.04)	11.27(2.96)	11.45(3.13)	10.32(3.50)	10.10(3.58)
		F= .10	F= .22	F= 2.98	F= 1.99	F= 4.35*

* p < .05 ** p < .01 *** p < .001

앞에서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슬픔을 조절하려고 하였다.

둘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슬픔에 관한 언어 조절(F=4.51, p<.05), 표정 조절(F=7.00, p<.01)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1세 아동은 13세 아동보다 언어 조절, 표정 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상의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경우 어린 아동일수록 언어, 표정을 조절하는 반면 나이든 아동은 활동을 통한 정서

조절 전략을 발달시킨다(Zeman & Garber, 1996)는 점에서, 슬픔조절 전략 사용에 있어서 발달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활동 조절전략(F=4.35, p<.05)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자는 여아보다 슬픔의 상황에서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앞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맥락은 아동들의 정서조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정서조절에 있어서 어떤 사회화 대행자 앞에서 정서를 표현하느냐에 따라 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분노의 경우, 또래에 대해서는 친사회적 동기와 규칙-지향적 동기가 높게 나타나 아동은 분노를 표현하면 또래가 마음 아파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또래 앞에서는 분노

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정서 표현은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Eisenberg & Fabes 1992), 낮은 또래 수용과도 관련되며(강희연, 1998), 특히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아동들에게 있어 또래라는 존재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역량과 관련하여 위의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하겠다.

반면,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관계적 동기를 높게 보임으로써 분노 표현시 어머니와의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였다. 이는 분노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에 대한 관계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Zeman & Shipman, 1998)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나라 부모들이 서양의 부모들보다 자녀의 분노 표현에 대해 더 엄격하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본 연구대상의 연령이 11세와 13세였음을 감안해볼 때, 아동후기에 들어서면서 분노조절에 대한 부모의 정서 사회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적인 동기로서 분노 조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동기는 11세 아동들에게 더 잘 발견되었으며 13세 아동들은 분노를 조절하되, 상대방의 정서적 복지를 더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11세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나이든 아동은 보다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최정윤, 1994; Gnapp & Hess, 1986), 타인의 정서에 대한 조망능력과 같은 사회인지적 능력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아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분노를 조절한 반면 여아들은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보다 관계-지향적인 동기를 가짐으로써 분노를 조절한다(Timmers et al., 1998)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서 사회화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여아는 남아보다 양육적인 존재로 사회화됨으로써 타인의 정서적 욕구에 주의를 보내

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존재로 크게 된다.

둘째, 슬픔의 정서에서는 정서조절의 동기가 연령과 성별에 의해 더 잘 설명되었다. 13세 아동의 친사회적 동기가 11세 아동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정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서적 조망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슬픔의 친사회적 동기와 규칙-지향적인 동기는 연령과 청중조건이 결합되어 설명되는데, 아동후기까지는 어머니에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수용된다고 생각하다가 아동이 청소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인 자기노출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슬픔 조절 동기는 분노 상황에서의 정서조절 동기와 마찬가지로 정서 사회화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남아는 슬픔에 대해 자기-보호적인 동기를 가지고 슬픔을 조절하는 반면 오히려 여아의 슬픔은 사회적으로 더 수용된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남녀의 성별에 따라 정서 사회화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셋째, 분노조절 전략에 있어서 또래에 대해 공격성 조절 전략이 사용되었다. 이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정서 표현은 낮은 또래수용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강희연, 1994; Eisenberg & Fabes, 1992)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심지어 매우 친밀한 단짝친구에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시할 경우 그들의 거부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어머니에게는 활동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분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사용한다(Beaver, 1997). 정서 조절 전략에 있어서 청중이 전략 선택에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로 밝힌 작업이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노조절의 하위 전략들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11세 아동은 13세 아동보다 표정으로써 분노를 조절하였다. 언어적, 표정적 조절 전략의 발달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하므로(최정윤, 1994 ; Gnepp & Hess, 1986 ; Zeman & Garber, 1996) 이에 관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분노조절 전략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양에서 여아의 울음 조절 전략과 남아의 공격성 조절 전략이 보고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결과이며, 이에 관해서는 정서 조절전략에 관한 후속연구들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분노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앞으로는 스트레스의 대처행동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슬픔 상황에서의 정서조절 전략에서 아동은 어머니 앞에서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슬픔을 조절하였다. 슬픔 상황에서 아동은 수동적인 철회를, 분노 상황에서는 공격성을 나타낸다(Zeman & Garber, 1996)는 점, 그리고 주요한 사회화 대행자인 부모 앞에서 정서조절에 관한 아동의 결정이 부분적으로는 부모와의 정서적인 의사소통의 역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Garner et al., 1997)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의 결과는 슬픔을 포함한 정서에 관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앞으로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설명하는 변수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1세 아동은 13세 아동보다 언어, 표정 조절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정서 조절 전략 사용에 있어서 발달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언어, 표정의 조절은 활동을 통한 정서 조절보다 일찍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Zeman & Garber, 1996)의 맥락에서 설명된다.

남아는 여아보다 슬플 때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는 남아보다 슬픔에 더 민감하고 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화되는 반면 남아는 그렇지 않다(Zeman & Shipman, 1998)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가상적인 정서 시나리오에 의한 자기-보고식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성별에 따른 사회적인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울음 조절과 공격성 조절에 있어서 분노, 슬픔 모두의 상황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할 만하다. 서양의 아동들에게서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여아는 울음조절 전략을, 남아는 공격성 조절 전략이 나타난다는(Zeman & Garber, 1996 ; Zeman & Shipman, 1998)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나라와 서양의 남녀 아동들간에 정서조절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을 막론하고 이들의 울음에 대해 엄격하게 사회화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보다 연령이 더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 듯 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자료의 성격상 분노와 슬픔의 상황을 청중조건, 연령, 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각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을 정서유형별로 비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정서유형 자체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분노, 슬픔의 정서유형에 따른 정서조절의 다양한 측면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남녀 아동의 정서적인 반응에 나타난 개인차와 관련된 과정들이 설명되지 못했다. 특히, 정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조절능력은 그의 기질과 관련되기도 하므로(Eisenberg & Fabes, 1992), 이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연구들에서는 정서조절과 관련되는 부모변인, 또래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부모, 또래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보다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으로써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위를 연구하

지 못했다. 연구방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갈등해결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므로(Laursen & Collins, 1994),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보다 더 나은 정서적 역량을 측정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11세, 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을 청중효과로써 설명함으로써 정서조절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아동에게 미치는 부모와 또래의 영향을 설명했다는 점과, 정서조절을 구체적으로 동기와 전략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강희연. (1998).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 (1994). 분노 유발 상황과 분노 수준별, 청소년의 대처전략과 효과성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임. (1996). 아동의 화 정서 이해 및 화 정서 조절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일. (1998). 체험정서와 표현정서의 심리적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은. (1997).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최정윤. (1994).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유진. (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Barrett, K. C., & Campos, J. J.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II: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 Wiley, 555-578.
- Beaver, B. R. (1997).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selection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daily stresses. *Merrill-Palmer Quarterly*, 43(1), 129-146.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Davis, T. L. (1995).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660-667.
-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 Psychiatry*, 34, 715-728.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 Newbury Park, CA : Sage. 119-150.
- Garner, P. W. (1995). Toddlers' emotion regulation behaviors: The role of social context and family expressivenes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4), 417-431.
- Garner, P. W., Robertson, S., & Smith, G. (1997).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s with peers: The roles of gender and emotion socialization. *Sex Roles*, 36(11/12), 675-691.
-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Laursen, B., & Collins, A. (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2), 197-209.
- Oatley, W., & Jenkins, M. A. (1996). *Understanding Emotions*. Cambridge MA : Blackwell.
- Sarni, C. (1991). *Social context and management of emotional-expressive behavior: Children's expectancies for when to dissemble what they feel*.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 Thompson, R.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Timmers, M., Fischer, A. H., & Manstead, A. S. R. (1998). Gender differences in motives for regulating emotion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74-986.
- Whitesell, N. R., & Harter, S. (1996).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emotion: Anger with close friends and classmates. *Child Development*, 67, 1345-1359.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 Zeman, J., & Shipman, K. (1997). Social-contextual influences on expectancies for managing anger and sadness: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9), 917-924.
- Zeman, J., & Shipman, K. (1998). Influence of social context on children's affect regulation: A functionalist perspectiv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2, 141-165.